



청소년 문학계 이끄는 광주출신 작가 최유정

“청춘이라는江 웃으며 건넌으면 해요”

“청소년이라는 시기적 특성이 제겐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최근에 ‘사자의 꿈’(시공사)을 펴낸 광주출신 최유정(47) 작가는 십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들을 향해 조심스레 손을 내민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아파하는지를 듣는다. 흔들리는 아이들이 사실은 어른들 때문이라는 걸,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사회 구조 때문이라는 걸 그녀는 모르지 않는다.

없이 드러난 소통 부재의 현실은, 사실은 어른들이 구축한 죽음의 세계다.

오늘의 십대는 물 위를 떠도는 부평초와 같다. 가정에도, 학교에도 그 어디에도 뿌리를 내릴 곳이 없다. 세상은 일등만 살아남는, 아니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작가 또한 흔들리던 시절이 있었다. 흔들리다 보니 삶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흔들리다 보니 아파하는 이

졌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압의 정권도 흐르는 시간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해버렸다. 간단한 조사를 끝으로 수배생활이 종결되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오섭의원(광주 북갑)이 그녀의 남편이다. 흔히 말하는 동지애적 관계가 부부발견된 경우다. 남편은 그녀가 수배생활을 할 때 도움을 준 조력자이자, 열렬한 글쓰기 후원자다.

“청소년이라는 시기적 특성이 제겐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더구나 한국사회에서 강요되는 성적과 입시 위주 경쟁은 또래 애들이 있는 엄마로서 적잖은 고민을 하게 했어요.”

현재 최 작가는 문흥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독서회를 이끌고 있다. 대학 때 펼치고 싶었던 꿈을 차근차근 옮기고 있다. 그녀가 직접 ‘작은 도서관’ 공모전에 기획서를 내 당선이 되었던 터라 책임감이 무겁다.

청춘의 시절 최 작가가 건너온 인생의 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의 곡절을 경험하기 마련이지만 그녀가 겪은 시련은 시대의 아픔과 맞물린 탓에 후유증이 컸다. 생각하는 대로 쉽게 인생이 풀렸다면 그녀 앞에 작가라는 호칭은 붙지 않았을 거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특하나 청소년을 향한 무한한 애정의 손짓이 어떤 모습으로 결실을 맺게 될지 기대가 된다. 그녀가 써내려갈 상상의 세계 속에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살포시 놓일 날이 왔으면 한다.

／박성천기자 k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미국의 백만장자 존 록펠러(1839~1937)에게는 생전 ‘악덕 기업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법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초창기 미국 석유시장을 독점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뇌물과 리베이트 등의 ‘검은 돈’ 배후에는 으레 록펠러가 있다고 할 정도였다.

지난 1909년 록펠러는 ‘강도극속’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자선사업에 눈을 돌렸다. 그의 뜻에 가장 적극적으로었던 사람은 부인인 에비 록펠러였다. 평소 미술품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사교

폴 게티 미술관은 오늘날 미국인들의 위대한 유산이 됐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두 아들의 집에 ‘깊숙이 쥘어져 있던’ 미술품들이 세상에 나왔다. 마치 무슨 죄인처럼 미술품들이 ‘끌려 나와’ 차에 실려가는 모습은 예술에 대한 모독을 느끼게 했다.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버터 온 사람의 컬렉션은 순수한 미술사랑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그림들이 ‘주인’을 잘못 만나 수모를 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도층들의 컬렉션을 미술관에서 언제든지 접할 수

‘미술품 커넥션’을 끊으려면

모임에서 알게 된 메리 킴, 릴리 블리스와 함께 1929년 맨하탄 한 복판에 뉴욕 현대미술관(이하 모마)을 건립했다. 록펠러 여사가 내놓은 기금으로 모마는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을 품에 안았다. 일명 ‘록펠러 컬렉션’으로 불리는 이 작품들은 매년 전 세계에서 250만 명이 찾는 모마의 아이콘이 됐다.

어디 록펠러 뿐인가. 관산재벌 구겐하임, 철도왕 밴더빌트, 석유재벌 폴 게티 역시 ‘과도 눈물도 없는’ 수완으로 부를 일궈냈다. 하지만 여느 기업인과 다른 점은 퇴임 후 평생 수집한 미술품을 세상에 기증함으로써 지도층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들 컬렉션이 모태가 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LA

있는 미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사실 미술품이 검은 돈과 짝을 이루는 ‘미술품 커넥션’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09년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유명해진 ‘행복한 눈물’에서부터 2011년 한상철 전 국제청장의 ‘그림로비’로 쓰인 ‘학동마을’, 최근 CJ이재원 회장의 비자금으로 구입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제2, 3의 ‘행복한 눈물’이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미술품을 예술이 아닌, 탐욕의 대상으로 보는 한 ‘미술품 커넥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미국 상류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부러운 적이 없다.

〈편집국 부국장 겸 문화선임기자〉

40년만의 ‘별을 보여드립니다’

열화당, 장흥출신 이청준 작가 5주기 소설 복간

“40년 전 그대로 복간하는 것은 이청준 문학 세계를 오롯이 보여주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장흥 출신 이청준(1939~2008)의 첫 창작집 ‘별을 보여드립니다’를 복간한 열화당 이기웅 대표(파주출판정보산업단지 이사장)는 30일 출판기념회에서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복간본은 출판사 일지사가 지난 1971년 발행했던 이청준 첫 창작집으로, 열화당이 작가 이청준 5주기에 맞춰 40여년 만에 복간한 것. 창작집에 대한 평론, 작가 연보, 작가의 문학적 단상 등을 모은 책도 ‘불혹의 세월이 남긴 기록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출간됐다.



복간본에는 이청준의 등단작 ‘퇴원’을 비롯해 ‘병신과 머저리’, ‘매잡이’ 등 주옥 같은 20여 편의 단편이 실렸다. 그의 초기작은 대체로 인간소외, 지식인의 고뇌, 전통적 정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탐색을 시도한다. 또한 이후의 이청준 문학을 가늠할 수 있는 특유의 지적 세계와 언어에 대한 천착이 정밀하게 드러나 있다. 첫 창작집 발행 당시 일지사 편집장이었던 이 대표는 “저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이청준은

남도가 남은 위대한 작가이자 한국현대문학사에 빛나는 지적인 작가였다”고 말했다.

이청준의 ‘별을 보여드립니다’는 70년대에 걸쳐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 이후로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최고의 문학성을 갖춘 작품집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대표는 처음 이청준의 작품을 접하고 본격적으로 발간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될 성부른 ‘퇴원’을 봤을 때의 감회는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며 “5주기를 계기로 이청준 문학이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의 정신적인 풍요를 채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kskypark@kwangju.co.kr

조선대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8월14일까지 어린이 역사문화교육 프로그램인 ‘제7기 우리 땅이 온통 학교’(이하 온통학교) 근대역사탐방 참가자를 모집한다.

군산과 서울의 대표적 근대유적지를 둘러보는 제7기 온통학교는 8월 17~18일, 8월24~25일 일정으로 두 차례 열린다.

1930년대 군산의 모습과 일제 수탈 현장을 재현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대한제국시대에 건립된 서양식 건물인 옛 군산세관,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을 답사한다.

서울에서는 을사늑약을 체결한 현장인 덕수궁 종면전과 애국지사들의 숨결을 간직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백범김구기념관 등을 탐방한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근대연표해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의 저자 조선동희의 특강이 열린다.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이며, 선착순 7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0만 원이다. 문의 전화 062-230-633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만’가지 알찬정보와 ‘물’만난 살림꾼들의 ‘장’상초월 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